

아프리카 이미지의 명(明)과 암(暗)

김 경 랑*
(서울대학교)

1. 서론

최근 국내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문기사는 물론 방송매체에서 아프리카를 다루는 기사의 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MBC기획 『아프리카 눈물』은 이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사례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여유로움이 대외원조의 필요성으로 옮겨간 것인가? 자원외교의 요청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휴머니티의 강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쨌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아프리카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실의 왜곡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인식조사’¹⁾에서 “아프리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세 가지를 써 보시오”라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1) 2011년 10월 인하대학 및 상지대학에서 교양 프랑스어를 듣는 학생 각각 89명 및 120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항목에 “가난, 기아, 사막, 위협, 물, 더위, 동물, 흑인, 더러움, 독재, 분쟁, 에이즈, 열대기후, 사냥, 타잔” 등이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기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또한 한 여자 고등학교 교사에게 프랑스어 유용성의 홍보를 위해 붙여권 아프리카에 대한 소개를 권했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프랑스어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손상될까 염려된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다. 이 역시 일반인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경우라 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리 잡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즉 편견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인터넷 정보와 신문 그리고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왜곡된 정보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대중매체, 특히 신문기사와 광고 그리고 캠페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달되는 아프리카의 모습을 분석해 보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다른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왜곡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 아프리카에 대해 “화석화된” 우리의 시각을 바꿀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²⁾

2. 대중 매체가 만들어낸 아프리카 이미지들

1. 기아와 질병, 결핍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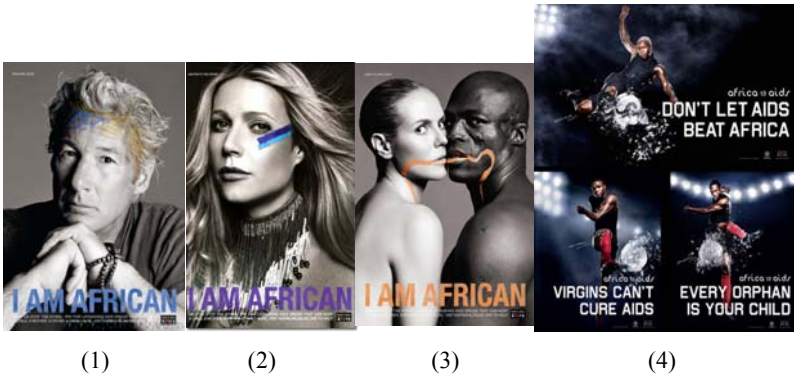
다음은 뉴욕에 본사를 둔 KCA(Keep a child Alive)³⁾라는 비영리 단체에

2) 장용규, 『춤추는 상고마; 줄루의 땅, 에구투구제니의 슬픈 노을』, 한길사, 2003, pp. 350-351.

“우리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아프리카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미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다.”

3) 이 단체의 주된 업무는 에이즈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하루에 1달러!’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캠페인 사진들이다.



(1), (2), (3)은 2006년에 실시된 ‘I AM AFRICAN’이라는 캠페인 사진들이다. 리처드 기어, 기네스 펠트로, 하이디 클룸, 쉘, 지젤 번천 등 유명한 해외 스타들이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의 뜻에 동참하였고 이들의 압도적인 이미지들은 세간의 시선을 모은 바 있다. ‘나는 아프리카인이다’라는 슬로건은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인의 DNA를 가진 후손들로서 서로가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세계 유명스타들이 아프리카 부족을 상징하는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카메라 앞에 섰던 것이다⁴⁾. 그런데 ‘나는 아프리카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로 ‘에이즈와 마약 구조를 위해 우리를 도와주세요’⁵⁾라는 작은 글씨의 문구가 덧붙여 있다. 사진(4) 역시, KCA의 2010년 아프리카 캠페인 사진이다. 아프리카는 에이즈와 고아들의 나라로 서방국가들이 이를 퇴치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한 힘을 보태주어야 하는 곳임을 멋진 사진에 담고 있다. 이 두 캠페인은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그 가족을 후원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

4) KCA 홈페이지(<http://keepachildalive.org>).

5) I AM AFRICAINS. HELP US STOP THE DYING PAYS FOR LIFESAVING AIDS AND DRUGS THAT CAN KEEP

가 어떠한 아프리카 대륙은 죽음과 에이즈 그리고 고아들이 넘치는 장소이며 검은 대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비정부단체들에서 벌이는 아프리카 캠페인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인터넷 자료를 통한 아프리카에 관한 캠페인 내용은 주로 ‘빈곤과 보건문제, 식수난 해결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 등으로 대표된다. 쉘한 눈의 아이들,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힘없는 엄마 사진들과 함께 아프리카는 구호 대상의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막연한 구호 대상의 나라로서의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후원금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자. 다음은 우리나라 NGO의 아프리카 캠페인 제목을 몇 개 정리한 것이다.⁶⁾

(1) 식량지원 캠페인

서아프리카 식량위기 특별모금 (한국 카리스타)

아프리카에 포도밭을! (풀무원)

슈팅 포 아프리카 (국제 구호단체)

동아프리카 기근 구호 (월드비전)

SOS 아프리카 - 기근 대책 캠페인 (CNBB, 카리타스)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영양 죽을 선물해 주세요! (국제 아동돕기 연합)

아프리카 식량난 위한 포워드 캠페인 (월드비전, USAID)

2011 기아 대책' 식량지원 캠페인 'STOP HUNGER'

(2) 식수정화 캠페인

‘아프리카의 눈물, 물로 전하는 희망’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미네워터 바코드rup 캠페인, 아프리카 아이들과 물을 나누자’ (CJ제일제당)

아프리카 식수 지원을 위한 ‘착한 물’ 캠페인 (팀앤팀)

(3) 물품지원 캠페인

6) ‘아프리카 캠페인’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1-2쪽에서 검색되는 캠페인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 (엔트리브소프트)

(4) 질병예방·치료 캠페인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 (굿 네이버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생명의 모기장을!’ (Un Nets go)

(5) 병원 및 학교 건립 캠페인

아프리카 학교건립 프로젝트 후원 (스토케)

결국 이상의 캠페인들은 아프리카인이 무엇보다 식량과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에서 가끔씩 소개되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의 사진은 우리의 뇌리에 굶주린 아프리카인의 이미지를 깊이 새겨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마치 이 두 나라가 아프리카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국이고 이들의 언어는 3,000~4,000개가 넘으며 부족의 수는 5,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국가나 언어, 또는 부족별로 다양한 수준의 사회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까지 아프리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지방이나 마찬가지로”⁷⁾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즉 각 부족과 국가들의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거대한 대륙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을 더욱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음식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배급량이 얼마 안 되어 굶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다음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이미지들이다⁸⁾.

7) 조제 카푸타 로타(이경래 외 번역), 『아프리카 인들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새물결출판사, 2012. p.120

8) ‘구글’ 사이트에 ‘아프리카’를 키워드로 검색한 사진들이다. 사진들 사이트 : <http://www.wvkor.org/bbs/board.php?dbName=bid03&idx=680&page=1&m>



그럼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접하는 신문기사에서 읽히는 아프리카는 어떠한가? ‘아프리카’를 키워드로 하여 조선일보에 검색되는 기사 건수는 2011년⁹⁾에 모두 4,723건으로, 이는 아프리카에 관한 기사는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라는 어휘가 씌어 진 기사 전체를 포함하는 숫자이다. 2000년도는 1,082건으로 지난 10여년 사이 키워드 검색 건수는 약 4~5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082	1537	1808	1614	1497	2248	3399	3386	3649	4030	5804	4723

[표 1] 연간 아프리카 검색어 기사 건수 (2000~2011년)

[표1]에서 보이듯 아프리카 관련 건수는 2005년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도의 경우, 그 전·후 년도와 약 1000건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2010년 FIFA 월드컵이 아프리카에서 개최되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면 비록 검색어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근 20~30년 사이에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우리의 관심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ode=read

<http://www.cheilstory.com/325>

<http://blog.segye.com/tjtls1/114585>

- 9) 연간 기사 건수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최근 기록을 참고하고자 할 때, 2012년 5월 현재, 5개월간의 자료밖에 참고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자료를 준거하였다.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8	19	55	19	17	20	19	9	19	8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수	117	147	164	358	438	404	347	1056	927	1108

[표 2] 연간 아프리카 검색어 기사 건수 (1980~1999)

그렇다면 신문에 보도된 아프리카 대륙의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다음은 조선일보에 보도된 아프리카 관련 주요기사들¹⁰⁾을 ‘봉사 및 성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주제별로 분류하여 월 단위로 검색해 본 결과이다.

	봉사 및 성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합계
2011년	18	5	13	6	5	47
2009년	9	3	7	13	7	39

2011년 연간 47건의 주요 기사 중 봉사 및 성금 기사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중 연예인들의 아프리카 봉사가 5건이고 새마을 리더들의 아프리카 방문과 같은 기술봉사가 1건, 의료 봉사 2건, 축구공, 죽, 망고 나무 등과 같은 물품 전달이 3건, 그 외 우리나라에서의 성금마련 프로젝트가 4건에 이르고 외국에서의 아프리카 구호기사가 3건이다. 즉 아프리카는 봉사와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구호 대상의 국가임이 신문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새마을 리더들의 아프리카 방문(2011년 7월 22일자)과 망고나무 심어주기(2011년 9월 6일자)는 단순한 구호사업을 넘어서 기술이전 및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아프리카인들이 자생적 독

10) 조선일보 기사 검색 DB사이트에는 연도별, 월별, 조선일보의 주요 기사가 온라인으로 검색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이 검색엔진을 토대로 하였다.

(<http://search.chosun.com/search/panorama.search?query=%EC%95%84%ED%94%84%EB%A6%AC%EC%B9%B4>) 2010년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월드 컵으로 인하여 축구기사가 상당 수를 차지하므로 2011년과 2009년의 기사 수를 비교하였다.

립심을 잃고 구호 사업에만 의존하게 하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60초마다 한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가 죽어간다’는 구호를 보면서 나의 작은 성금이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음에 가슴 뿌듯해하고, 아프리카인들은 이 도움을 감사히 받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한 작가, 우조딘마 이우에알라Uzodinma IWEALA가 2007년 7월 28일자 「르 몽드지Le Monde」에 ‘나는 더 이상 구원받고 싶지 않다Je ne veux être plus sauvé’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은 우리들의 아프리카 구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다음은 그녀가 쓴 기사의 일부이다.

“다음번 G8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 세계는 아프리카는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아프리카는 다른 국제 공동체 멤버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기를 바란다”¹¹⁾

또한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가 그녀의 책 『죽은 원조Deau AIdé』에서 주장하듯,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이고 있는 것”¹²⁾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 원조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파리와 자연의 보고

기아와 질병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외에 긍정적 이미지도 없지 않다. 푸른

11) J'espère qu'avant le prochain sommet du G8 le monde aura enfin compris que l'Afrique ne veut pas être sauvée. L'Afrique veut que le monde reconnaisse qu'au travers de partenariats équitables avec d'autres membres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lle sera elle-même capable d'une croissance sans précédent.

12)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1970년대 아프리카 인구의 10% 미만이 극심한 빈곤 상태였으나 오늘날은 사하라 이남 인구의 70%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한다”며, “원조금은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게 하고, 심지어 부패를 더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09년 7월 8일자)

초원과 원시림, 사파리, 즉 자연의 보고로서의 아프리카다. 그러나 그뿐이다. 여행사 광고¹³⁾에서 소개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은 야생동물과 사파리의 모습뿐이다. 간간이 코와 귀에 이상한 물건을 달거나 끼고 반나체의 흑인들 사진이 옆에 장식되어 있다. 우리 문화권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원시 부족들의 희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광고이다. 높은 빌딩과 오염에 지친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연과 휴식, 비문명의 이미지는 아래의 사진들에 보듯 여행 상품으로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프리카인을 그려 보시오”라는 결과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 <http://africa.nomad21.com/nomadAfrica.asp?What=C&Menu=Step10&Gid=C-CPT002&Mode=Show#sTop> http://www.fintour.co.kr/tour_03/tour_10.asp

학생들이 그린 아프리카인은 모두 나체에 곱슬머리며, 신체의 일부만을 가린 채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있다. 소위 문명인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시인 혹은 식인종의 모습이 곧 우리나라 대학생들 -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 이 생각하는 아프리카인이었다. 학생들에게 아래에 제시된 알제리인과 모로코인들의 사진¹⁴⁾을 제시하고 이들의 국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 묻은 질문에 “중동인”, “이슬람인”¹⁵⁾이라고 대답했다. 질문에 응한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인은 모두 검은 피부에 원시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족단위의 그룹을 연상시켰다.



2011년 조선일보 기사 중, ‘문화’란에 분류한 내용 역시 ‘야생, 생명력’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아프리카의 자연과 관련된 것이고 자연 이외의 다른 문화 혹은 문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를 날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	날짜	기사제목
1	06	-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 일회용 카메라에 담다 오늘부터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사진전
	21	- 두려움과 충격, 환희의 아프리카 MBC다큐 “아프리카의 눈물”

14) <http://www.lapresse.ca/le-droit/franco-plus/201101/14/01-4359977-le-choc-de-la>
<http://www.google.fr/imgres?q=%EB%AA%A8%EB%A1%9C%EC%BD%94%EC%82%AC%E>

15) 이슬람인, 즉 무슬림이라는 학생들의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이슬람교가 중동인들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6	23	“생명력 넘치는 땅” 아프리카가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서 아프리카 문화축제)
7	18	야생이 살아 숨쉬는 '아프리카의 밤'을 본 적 있나요? (서울대공원 아프리카의 밤이란 테마로 야간 개장)
8	05 25	- ‘아프리카의 눈물’ 극장판 방송 - 김병만, SBS 새 예능 출연...아프리카 현지 촬영

다음은 최근에 방영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아프리카의 눈물16)”이란 다큐의 소개 사진 및 문구이다.



“장엄한 아프리카의 자연과 인간! 인류의 고향 에티오피아 (...) 원시부족 카로족, 수리족의 경이로운 삶 그리고, 지상 최대의 사막 사하라의 아름다운 원주민 폴라니족... 사바나를 질주하는 일백만 누우 떼의 대장정과 삶을 떠도는 대륙의 주인들의 뜨거운 눈물. 광활한 대지에 펼쳐지는 인간과 자연의 숨막히는 드라마”

이처럼 아프리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송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한 편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마지막 남은 블루 오션’이라는 표현과 함께 투자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소개되는 아프리카에 대한 수식어가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기아, 에이즈, 원시, 분쟁’으로 고통 받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

16) <http://www.imbc.com/broad/tv/culture/africa/photogallery/index.html>

리카가 아니라 “자원 외교”니 심지어 “부국”이라는 표현이 따라 다닌다.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을 잘 살펴봐요’라는 멘트와 함께 아프리카의 자원지도를 소개한 블로그¹⁷⁾에서 아프리카는 부국으로 표현되었다. 2009년은 ‘한·아프리카 포럼’이 열린 해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과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미지의 대륙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와 ‘미래 지향적 동반자’라는 새로운 외교관계가 정립되었다.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외교에 비해 후발주자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자원 개발 투자 속도에 대해 “빨리 빨리 한국, 아프리카 자원외교에는 느릿느릿”(2010년 7월 2일 디지털경제신문)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리더니 어느덧 우리나라도 점점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 신문기사 제목에서는 아프리카를 “자원전쟁 지역”으로 소개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그러한 신문기사 제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아프리카 자원외교, 이번엔 잠비아 망간탐사’ (2010년 11월 4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훈 시장, 아프리카 자원외교 나선다. (2011년 5월 25일)

‘中·日, 아프리카 자원외교 불붙었다’ (2012년 3월 18일)

아프리카 자원 잡자” 총성없는 中-러 전쟁 (동아일보 2012년 1월 30일)

일 자원외교 박차, 아프리카에 대사관 대폭 확충 (파란일보 2012년 3월 18일)

아프리카의 이해 자원외교의 격전장(블로그 2012년 4월 5일)

세계는 자원전쟁 중···'자원창고'아프리카로 (MBC뉴스 2012년 5월 17일)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아프리카의 이미지들은 모두 현재의 아프리카를 보여주는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아프리카 얼굴들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모습만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칫 아프리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아프리카

17) <http://monkeymoney.tistory.com/506>

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방적인 부정의 이미지는 자칫 그 옆에 공존하는 긍정의 이미지를 은폐하여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아프리카의 또 다른 모습에 눈을 돌리려는 것은 이 대륙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3. 아프리카의 또 다른 이미지들

“자연은 아프리카 흑인에게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어떠한 감정도 부여하지 않았다.”¹⁸⁾(엠마누엘 칸트Emmanuel Kant), “흑색소의 변종은 가장 비천하고 (인간의) 하급 단계에 놓여있다.”¹⁹⁾(고비노Gobineau 백작)²⁰⁾ “나는 흑인들과 일반적으로 다른 인종들이 본래 백인종보다 열등하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 그들에게는 제조 기술도 예술도 과학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식민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유럽 도처에 퍼져있는 흑인 노예들의 존재하며, 그들에게서는 최소한의 지적 표시도 발견되지 않았다.”²¹⁾(흄David Hume)

위의 인용문들은 한 시대와 국가를 풍미한 영향력 있는 학자 및 위인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남긴 글과 주장들로, 현대인이 아프리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관념의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인류의

18) Jean Phippe Omotunede, 『Les racines africaines de la civilisation européenne』, Edition MENAIBUC, 2002, p13. “La nature n'a doté le nègre d'Afrique d'aucun sentiment qui ne s'élève au-dessus de la niaiserie”

19) "La variété mélanienne est la plus humble et gît au bas de l'échelle (humaine)."(*ibid.* p.12)

20) 프랑스의 고비노Joseph Arthur Gobineau 백작(1816-1882)은 과학적 인종차별주의의 선구자이며 외교관이자 작가이다.

21) "Je suspecte les Nègres et en général les autres espèces humaines d'être naturellement inférieurs à la race blanche. (...) Il n'y a chez eux ni engins manufacturés, ni art, ni sciences. Sans faire mention de nos colonies, il y a des Nègres esclaves dispersés à travers l'Europe, on n'a jamais découvert chez eux le moindre signe d'intelligence". (*ibid.* p.13.)

기원, 학문의 기원, 그리고 신화의 기원으로서의 아프리카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현대적 모습의 아프리카 도시들과 그들의 경제적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의 삶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DNA검사라는 과학적 증명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1997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된 두개골 3점은 16만 년 전의 것으로,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의 가장 오래된 유골로 추정된다. 이 화석은 현생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 사실이 현대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 문명이 아프리카인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아프리카인들을 역사가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story)”로 오인되고²²⁾ 아프리카 역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럽의 침입이 시작된 15세기 이후 유럽인에 의해 기술되었다. 결국 기술 문화의 부재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암흑의 대륙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2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블롬보스Blombos 동굴 벽화는 기원 전 80,000년 전 것으로서, 프랑스 아르데슈Ardèche의 쇼베Chauvet 동굴²³⁾ 벽화보다 약 40,000년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유럽이 현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²⁴⁾. 블롬보스 동굴의 발견으로 상당수의 학계 연구가들이 놀라고 있을 때, 여기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하는 기사 한편이 『르몽드』지에 실렸다. 다음은 그 기사의 일부이다.

22)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은 미국의 역사학자 에릭 울프Eric Wolf가 한 말이다.(이성재, 2011, p424)

23) 프랑스 남쪽 아르데슈 지방의 콤바다르크(Combe d'Ark)에 있는 선사시대의 벽화동굴 유적이다. 이 이름은 1994년 12월 처음 발견한 이 지방 고고학분과의 공무원인 J.M.쇼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300여 점의 벽화가 있는데, 동굴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종류는 12가지이다.

24) 『르 몽드Le Monde』2002년 1월 15일 기사

“우리는 연구자들의 과장된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유럽의 최초 예술가들의 작품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따라서 흑인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 유럽에서 발견된 여인을 조각한 최초의 작품(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발견된 브라쌍푸이Brassempouy)은 그 여인들이 아프리카의 세 갈래로 뿔아 늘린 머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흑인 남자와 여자들은 그곳에서 살았다. 게다가 유럽 동굴 벽에 그려진 동물군상 역시 아프리카의 동물군상이다.”²⁵⁾

(「르몽드」, 2002년 1월 16일)

즉 아프리카인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임과 동시에 현 문명의 뿌리를 이룬 기원임을 입증하며 주장하는 내용이다. 유럽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기원에 이집트 문명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집트인들이 검은 피부의 흑인이라는 사실에는 선뜻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프리카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인식했던 세네갈의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셰이크 안타 디오프Cheik Anta Diop(1923-1986)는 “그리스가 유럽에 속하듯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한다”는 요지의 이집트인의 유색인종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그의 주장은 계속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디오프는 아프리카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기원이자 요람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즉 아프리카가 오늘날 학문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예로 조제 카푸타 로타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럽에 유학을 가듯이 바다를 건너 나일 강 계곡의 스승들 곁에서 새로운 학문에 입문해야만

25) "La découverte de Blombos n'est pas une surprise pour certains chercheurs. Il convient cependant pour nous de ne pas rentrer dans le discours pompeux des chercheurs car les premières réalisations artistiques en Europe ont été faites par des hommes qui venaient d'Afrique. (...) Les premières sculptures de femmes trouvées en Europe (ex. la femme de Brassempouy trouvée en France) montrent qu'elles portaient des tresses africaines. Donc, c'étaient des hommes et des femmes noirs qui vivaient là. De plus la faune peinte sur les murs des grottes en Europe est encore une faune africaine."

했고, 철학 이외에도 기하학, 천문학, 신학 및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사실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흑인이었음을 그리스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글과 증언을 인용하며 주장하고 있다.²⁶⁾

“고대 이집트의 국호였던 케메트Kemet(kmt)라는 명칭은 ‘검다’라는 뜻의 kem에서 나온 말”이다(위키백과). 이에 대해 장필립오모둔드Jean Philippe Omotunde는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카미트Kami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검은색을 의미하며, 그들의 국가 명칭은 케메트Kemet 즉 흑인명명의 뜻이라 정의한다.(2004, P.95). 프랑스 태생 이집트의 역사학자 마스페로Maspero(1846 -1916)는 『성경』을 참조하며, ‘이집트는 흑인들의 나라이며, 거기서 이스라엘인들은 처음으로 박해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집트의 신전들 안에는 철학, 의학, 종교, 수학, 천문학, 기하학, 법 그리고 다른 지혜들을 다룬 귀중한 파피루스가 잘 보관되어 있었고 고대 시기 내내 문명의 요람은 흑이집트였다’²⁷⁾고 주장한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는 흑아프리카 문화권에 속하며 이집트 문화의 주요 창조자들이 흑이집트인 즉 아프리카 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와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연속성,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화와 흑아프리카와의 문화적 친족관계로 인해, 모든 흑인은 자신의 문화를 합리적으로 고대 이집트와 결부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에 기초해 현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신화 속 신들의 연구도 아프리카가 유럽문명의 기원임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프리카 신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역할과 일치하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전통, 신앙, 전설들 안에 여러 이집트 텍스트들을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²⁹⁾ 이집트 신과 그리스 및 로마 신들의 이름을 비교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조제 카푸타 로타, (이경래 외 번역) 『아프리카인에게 듣는 아프리카 이야기』, 새물결출판사, 2012, pp.42-45.

27) 같은 책, p. 52 참조

28) 같은 책, p. 57 참조

29) 같은 책, p. 147

이집트 신들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아몬	제우스	쥬피터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바쿠스
이시스	데메테르	세레스
호루스	아폴론	아폴론
네아트	아테나	미네르바
토티	헤르메스	메르쿠리우스
부바스티스	아르테미스	디아나
하토르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모텡	아스클레피오스	에스클라프

이러한 일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래하고 아프리카 신들의 기능을 그대로 모방하였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흑아프리카에서 경작의 여신인 이시스가 그리스(데메테르)와 로마(세레스)에도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철의 신인 프타도 그리스(헤파이스토스)와 로마(불카인)에 존재한다. 또한 지혜의 신 토티도 그리스(헤르메스)와 로마(메르쿠리우스)에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의학의 신 이모텡 역시 그리스에 존재한다. 의사들의 서약은 이모텡의 그리스어 발음에 다름 아닌 아스클레피오스를 상기하는 것으로 끝맺는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오시리스에 해당하는 사라피스는 디오니소스이며, 뒤 이어 로마 제국에서 널리 퍼진 제의에서 플루톤에 동일화되었다. 우리는 천칭을 든 흑인 헤르메스가 그려진 오래된 그리스 꽃병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뱀들과 악어들을 죽이는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흑인 아이를 묘사하는 그리스 조각들 역시 위험한 동물들과 싸워 이기는 호루스를 묘사하는 이집트 조각에 비교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아테네의 화병에는 그리스 신들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결국 아프리카의 신과 일치함을 보게 된다.³⁰⁾

이상과 같이 두 나라의 신화 대조를 통해 밝혀지듯, 우리는 이집트인의 정신세계가 흑아프리카 문명의 일부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집트의 신화체계를 받아들인 그리스 신들이 결국은 여러 아프리카 민족들의 신화체

30) J.P.Omotunde, *Les racines africaines de la civilisation européenne*, Edition MENAIBUC, 2004, pp. 135-139

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74년 유네스코가 주최한 카이로 국제과학 학회는 고대 이집트의 문화적 전통에 의해 밝혀진 흑인 정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과거의 영화로만 그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현대의 아프리카는 질병과 기아에 시달린 결핍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가? 아프리카 대륙을 굶주린 에티오피아와 같은 하나의 동일 성질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의 또 다른 현대적 모습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습이다. 아프리카는 동, 서, 남, 북 지형에 따라 경제 발전에 있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의 국가로 대표되는 북아프리카와 남아공의 남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유럽풍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수도와 몇몇 대도시들은 어느 나라 대도시 못지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 소개되는 기아와 질병의 아프리카 사진들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부 사진들로서, 우리는 이 사진들을 통해 아프리카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서아프리카라 해도 가봉공화국의 경우, “도약의 가봉Emergence du Gabon”이라는 기치 아래 “그린 가봉, 산업화 가봉, 서비스업 가봉”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15년간 신흥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의 경우, 2011년 7월 30일 모하메드 VI세 국왕 즉위 12주년 기념일(Fête de Trône)을 맞이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개혁, 선린외교, 경제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 의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사회 모든 계층의 단합과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 외 콩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2008년 5월 30일), 수단 지부장(2010년 1월 30일) 및 부르키나 파소 교육부 장관 방문(2010, 10월 25일) 가나, 남수단, 니제르, 콩고, 짐바브웨 장관의 한국 방문(2011년 10월 26일) 등은 한국의 발전된 경제와 교육의 장(場)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를 배우면서 앞으로 상호간 동반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세계인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모습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인류, 문명, 신화의 기원으로서의 문화적 뿌리가 아프리카였음도, 아울러 현대에 이르러 부단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자 노력하는 문명국가로서의 아프리카의 모습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논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원시문화를 간직한 원시 부족의 형태로만 그려지고 있음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인은 인류의 조상임이 드러났고 그리스와 그 외 몇몇 학자들에 의한 연구를 토대로 과거 학문의 요람이었으며 또한 신화의 기원을 이루는 곳이었음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진실에는 관심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역사 및 문화의 은폐와 왜곡은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문화적 상실감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손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유럽 식민지배의 유산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지의 대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민 역사를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럽 식민 사관에 의한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의 과소평가는 동일한 아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인은 아프리카에 15세기 초 노예 무역을 통해 식민 지배를 시작하고 19세기 말 식민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1960년대 아프리카 제 국가들이 독립할 때까지 장구한 세월동안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우수한 문화는 사라지고 약탈당하며 미개하고 야만적인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매스 미디어 안에서 드러난 왜곡된 아프리카 이미지는 어쩌면 유럽인에 의해 왜곡되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또 다른 문화적 왜곡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민의 아픔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점에서 경제적, 문

화적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협력이 이루어질 때 아프리카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살찌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프리카 이미지, 유럽 기원, 대중매체, 부정적 이미지

❖ 참 고 문 헌

김광수, 「아프리카 구전전통에 나타난 역사의식과 문화적 정체성」, 『아프리카 학회지』 20, 2004

이성재, 「아프리카 역사의 역사 교육적 가치」, 『동국사학 50집』, 2011, pp.421-456.
조제 카푸타 로타(이경래 외 번역), 『아프리카인에게 듣는 아프리카 이야기』, 새물결 출판, 2012.

Charles MOUMOUNI, 「L'image de l'Afrique dans les médias occidentaux : une explication par le modèle de l'agenda-setting」, Les Cahiers du journalisme 12, 2003. pp.152-169

Jean Philippe Omotunde, *Les racines africaines de la civilisation européenne*, Edition MENAIBUC, 2004.

Uzodinma IWEALA, 「Cessez de vouloir "sauver" l'Afrique !」, in *Diplomatie multilatérale*, août 2007

참고 사이트

<http://keepachildalive.org>

<http://search.chosun.com/search/panorama.search?query=%EC%95%84%ED%94%84%EB%A6%AC%EC%B9%B4>

http://suprememastertv.com/kr/services_subt.php?bo_table=mos_kr&wr_id=100&subt_cont=ajar&show=ajt&flag_s=

❖ ABSTRACT

Light and Shade in the Image of Africa

KIM Kyung-Rang

In this Study, the search and analysis for the contents of the mass media, especially, such as newspaper articles, broadcast campaigns, broadcasting advertisings, the Internet, etc, are accomplish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ause of the negative and fragmentary images about Africa holds a place in Korea's heart resulting from Korean mass media. Africa was seen as not only the continent of famine and diseases, but also a safari and the Nature's repository. However, these images are only the fragments of information about the African continent. So, we have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origin of Africa in aspect of its learning and the mythology as well as the truth of the African as modern human origins. Moreover, we have to do our endeavor to have a good perspective about Africa as our future partner somewhat less than the wretched continent that we applaud their effort to the pursuit of stability and the development in terms of their modern cities, economy and politics and we have to aid and send relief cargoes simply.

Keywords

The image of Africa, mass media, cause of the negative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5. 25